

2010.12.13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근동지역, 곡물생산성 저아로 식량난 가중

### 1. FAO(2010.12.07) 주요 내용

- 최근 근동지역(아라비아, 북동아프리카, 동남아시아, 발칸 등을 포함하는 지역)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곡물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음.
  - 더욱이 이 지역 국가들은 식량자원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생산 기반 및 시장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.
- 지난 12월 4~8일 수단 하루툼에서 개최된 제13차 근동지역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FAO의 Diouf 국장은 최근 근동지역 국가들의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 농업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제 사회의 관심과 도움의 필요성을 제기함.
- 근동지역의 곡물생산량은 전 세계 평균 생산량의 절반 수준이며 격차는 점점 확대됨. 이러한 추세로 볼때 2030년에는 식량부족량이 2000년의 두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
  - 근동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,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음.
  - 이러한 식량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근동지역 국가들의 곡물 수입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며, 국제 곡물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음.
- 물과 경작지 부족은 근동지역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Diouf는 지적함.
  - 근동지역의 1인당 연간 물 가용량은 1,050큐빅미터로, 세계 평균 가용량(8,900큐빅미터)의 12% 수준에 불과함. 또한 2050년에는 현재 가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
- 1970년대~1980년대와 달리, 최근 몇년 동안 근동지역의 농업부문 공공지출은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

-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%인 반면, 국가 전체 공공지출액 중 농업부문은 5%에도 미치지 못함.
- 근동지역은 생산성 저하, 물 및 경작지 부족, 공공지출 감소 등 농업 부문에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 - 근동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, 경제협력을 통해 농업부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.

### 2. 시사점

- 근동지역의 식량난은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,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자원외교와 연계한 농업분야(원조 및 개발) 투자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 검토 필요

## □ 주요 곡물 수출량 감소로 가격 상승세 지속

### 1. Businessweek(2010.12.07) 주요 내용

- 호주의 곡물 수출량 감소로 시카고 선물거래시장에서 밀 가격은 4개월간 강세가 지속되었고, 조곡 가격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음.
  - 호주 밀 수출량은 약 1,600만 톤으로 전망되며, 이는 연초 전망치(1,840만 톤)보다 13% 적은 수준임. 이는 잦은 강우로 수확이 지연되었고, 작황도 부진하기 때문
  - 더욱이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밀 생산량 감소폭은 더욱 확대
- 내년 3월 인도분 밀 선물거래 가격은 1.7% 상승한 부셸당 8.063달러를 나타냈고, 조곡 가격은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부셸당 8.095달러에 달함. 내년 3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거래 가격은 1.4% 상승한 부셸당 5.758 달러, 내년 1월 인도분 콩 선물거래 가격도 1.1% 오른 부셸당 13.025달러임.
- 기상관측에 따르면, 앞으로 10일간 호주 동부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

예상되어 밀 작황은 현 수준보다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.

- 품위간 격차가 심해져 약 5백만 톤의 식용밀이 사료용으로 이용될 전망

#### <USDA 전망>

- 밀 가격은 러시아, 캐나다, 미국 등 주요 밀 생산국의 기상악화로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약 6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- 브라질 콩 생산량은 연초에 전망한 6,870만 톤보다 3% 감소한 6,678만 톤으로 예상되며, 수출량은 연초 3,050만 톤보다 소폭 감소한 3,020만 톤이 전망됨.
- 브라질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콩 작황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, 마또그로소(Mato Grosso) 지역의 피해가 큼.

#### 2. 시사점

- 주요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내 식료품 물가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향후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식료품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

\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